

아시안컵은 베테랑 은퇴무대? 이의 있습니다!

박지성·이영표도 카타르 대회 후 떠나 감독들 베테랑 고집에 은퇴무대 전략 내부경쟁 통한 세대교체 보기 힘들어 아시안컵은 월드컵 향한 출발선돼야



구자철(왼쪽)과 기성용

4년 주기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은 2004년 중국 대회 이후 다음 대회가 3년 후인 2007년에 열렸다. 1년이 앞당겨졌는데, 이는 올림픽 때문이었다. 개최 주기가 겹치다보니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되는 올림픽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또 인기 높은 유럽축구선수권과도 주기가 같아 AFC의 고민이 깊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AFC가 내린 결정은 올림픽보다 한해 앞선 개최였다. 아시안컵이 2007년에 이어 2011~2015~2019년으로 이어진 배경이다. 달리 얘기하면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이 열린 다음 해에 아시안컵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월드컵이 끝나고 고작 6개월 만에 열리는 대회이다 보니 엔트리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 최고 기량을 갖춘 선수들의 평가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리가 없다.

물론 월드컵 이후 감독이 바뀌고, 또 그 감독이 자신의 뜻대로 새롭게 멤버를 구성하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아시안컵이 감독 부임 이후 첫 시험대라는 점 때문에 성적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은퇴를 고민하는 베테랑들을 만류하면서 아시안컵까지 데려가는 이유이자 세대교체를 미루게 되는 요인이다.

2011년 카타르 대회를 통해 박지성과 이영표가 동시에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한국 축구사에 큰 획을 그은 이들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은퇴를 시사했다. 하지만 여론이 가만 두지 않았다. 1960년 이후 우승이 없는 아시안컵을 다시 제패해 한국축구의

자존심을 살려야한다는 명분도 한몫했다. 2015년 호주 대회를 끝으로 차두리가 대표팀 유니폼을 벗었다. 강인한 체력과 투지, 그리고 뜨거운 열정은 마지막까지 강렬했다.

이처럼 어느 순간 아시안컵은 별들의 은퇴무대가 돼 버렸다. 이런 인식이 후배 선수들의 의식을 관통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수순처럼 굳어졌다.

2019년 UAE 대회에서는 지난 10년간 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졌던 기성용과 구자철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2018년 러시아월드컵이 끝난 뒤 은퇴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새로 지휘봉을 잡은 파울루 벤투 감독의 강력한 요청으로 아시안컵까지 이어졌다. 구자철은 카타르와 8강전에서 패한 뒤 공식적으로 은퇴를 밝혔다. 그는 “이번이 대표팀 생활의 마지막”이라고 뜻을 밝혔다. 기성용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부상으로 소속팀에 복귀한 뒤 개인 SNS를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모두 끝났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은퇴를 암시했다.

은퇴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향후 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선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수가 아니라 대표팀의 입장은 조금 달라야 한다. 은퇴무대를 갖는 선수와 처음으로 국제무대를 경험하는 선수 중 어느 쪽의 동기부여가 더 강할까. 기존의 베테랑과 세대교체를 통해 투입된 신예 중 어느 쪽이 더 강한 의욕을 보일까. 어떤 선수를 선발하면 선의 경쟁에 불을 지필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한 뒤 선수단을 꾸려야 하는 게 대표팀이 할 일이다.

이번 아시안컵을 보면서 세대교체를 억지로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굳이 막아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변화를 통한 내부 경쟁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고의 선수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꿈꿨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우선 아쉽고, 또 그들을 억지로 잡아두면서까지 희생시킨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는 말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아시안컵은 월드컵을 향한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는 게 우선이다. 그 결 발판으로 9월부터 시작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지역예선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전문기자 choing2@donga.com·체육학 박사

▶1면 ‘벤투호의 문제점’에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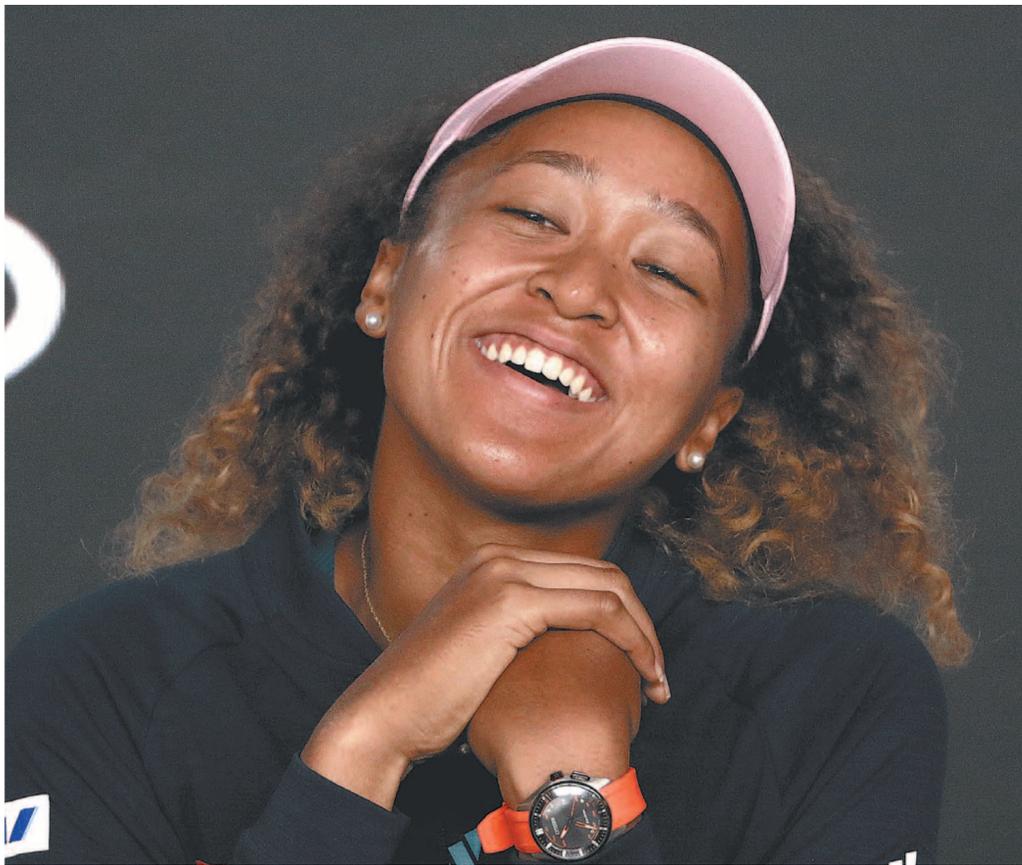
컨디션 조절 실패한 벤투호 고집이 아집이 될 수도 있다

그 여파는 아시안컵을 앞두고 UAE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2차 전지훈련으로 번졌다.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 전원이 훈련한 날이 극히 드물었다. 대회가 시작 된 이후에도 기성용(30·뉴캐슬), 이재성(27·울슈타인 힐), 황희찬(23·함부르크) 등 계속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기를 뛰어 다치면 코칭스태프도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소속팀에서 부상을 입었던 선수들을 선발하고 이들의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시키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게다가 아시안컵 개막 전후로 계약 문제로 의무팀에서 이탈자가 발생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대한축구협회 계약의 관행도 문제였지만 의무팀 스태프의 소명 의식도 부족했다.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지원스태프 문제가 터졌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다.

●너무 고집스러웠던 벤투 감독

벤투 감독은 이번에도 4-2-3-1 포메이션을 고수했다. 공격 강화가 필요할 경우에 간혹 두 톱을 내세웠고, 수비형 미드필더 1명을 공격 2선으로 전진 배치하는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를 활용한 시간은 짧았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한 손흥민(27·토트넘)을 UAE 도착 이틀 만에 중국전에 투입했고, 부상자가 나오지 않는 한 베스트11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부상상으로 인해 왼쪽 풀백만 자주 교체했을 뿐이다. 벤투 감독은 “감독이면 누구나 최상의 선수를 경기에 투입하고 싶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고수하면서 더 나은 득점력을 선보이겠다”라고 늘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고집스러움이 대표팀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선수들은 상대 밀집수비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에 시달렸고, 8강전 직후 손흥민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선수들은 하나같이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변함없이 신뢰를 드러냈다.

벤투 감독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의 말대로 높은 점유율을 어떻게 끝로 연결할 것인지, 유럽의 강호가 아닌 아시아 팀들을 상대할 때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들고 나올지에 대한 고민이다. 고집이 아집으로 바뀔까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오사카 나옴이가 26일(한국시간) 2019 호주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오사카는 지난 2018 US오픈에 이어 메이저대회 2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첫 세계랭킹 1위...女테니스 ‘나옴이 시대’

〈아이티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혼혈선수〉

아시아인 두번째로 호주오픈 우승 22세 불과... “이제 프랑스오픈 도전”

오사카 나옴이(22·일본·세계랭킹 4위)가 2019년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아시아 국적 선수로는 역사상 최초로 세계랭킹 1위에 오를 예정이다.

오사카는 26일(한국시간)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단식 결승에서 페트라 크비토바(29·체코·8위)를 2-1(7-6(7-2), 5-7, 6-4)로 꺾었다.

지난해 US오픈에 이어 메이저대회 2연

속 우승. 28일 발표될 세계랭킹에서도 이미 1위를 예약했다. 아시아 국적 선수가 세계랭킹 1위에 오르는 것은 남녀를 통틀어 오사카가 최하다.

2011년 프랑스오픈과 2014년 호주오픈에서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한 리나(중국)가 세계랭킹 2위까지 오른 것이 종전 최고다. 남자 최고 기록은 니시코리 게이(일본)가 기록한 4위다.

오사카는 크비토바와 1세트에서 타이브레이크 접전을 펼쳤다. 승부처 상황에서 5-1까지 달아나며 기선을 제압했고, 그대로 1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에서 내리 두 게임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한 오사카는 크비토바의 서브게

임을 연달아 브레이크한 뒤 자신의 서브 게임까지 지키며 게임 스코어 4-2로 앞서갔다. 그러나 크비토바의 끈질긴 공격에 연달아 게임을 내주며 5-7로 분위기를 넘겨줬다.

세트스코어 1-1에서 시작된 3세트. 오사카는 크비토바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하며 흐름을 가져왔다. 게임 스코어 5-4 상황에서는 자신의 서브게임을 가져와 우승을 최종 확정했다.

경기 후 오사카는 “메이저대회에서 연속 우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제 다가오는 프랑스오픈에 도전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은 2020년 23세 이하(U-23) 야구월드컵에 7이닝 경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올림픽,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같은 대회에서도 변화가 있을까. 사진은 지난 2015년 프리미어12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한국대표팀 이대호(앞 왼쪽)와 정근우.

스포츠동아 DB

“경기시간 너무 길다” 야구월드컵 7이닝 (2020년)

올림픽·프리미어12는 9이닝 유지

국제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야구의 정규이닝 축소가 결정됐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된 집행이사회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WBSC는 2020년 23세 이하(U-23) 야구월드컵에 7이닝 경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이후 야구 월드컵은 모두 7이닝 경기로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야구월드컵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프리미어12에 이어 WBSC가 주관하는 대회 중 세계랭킹 포인트가 세 번째로 높다.

야구월드컵과 함께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U-18)도 2021년부터 7이닝 경기로 펼쳐진다.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는 한국의 고교 정상급 유망주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일부 투수들의 혹사 논란이 일어 나기도 했었다.

WBSC는 그러나 올림픽과 프리미어12 등 메이저 대회는 이닝을 축소하지 않고 기존의 9이닝 경기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파리, 2028년 LA올림픽을 개최하는 영국,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야구의 지속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올림픽의 이닝축소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올림픽 야구게임의 이닝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야구경기의 진행 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다. 2008베이징올림픽 이후 야구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제외됐던 이유기도 하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